

“학력신장 · 책임교육 중심 핵심과제 확실히 시행돼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학교현장 안정적 지원, 전북교육 지속 성장” 강조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1일 직원 조희에서 “지금까지 일궈온 소중한 성과들을 굳건히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유 대행은 “내년 새로운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전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며 “학교 현장의 안정적 지원과 전북교육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 우리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사업은 도민과의 약속이자,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고 토의해서 만들고 의회의 검토와 승인을 거친 것”이라며 “‘학생중심 미래교육’ 정책 기조와 전북교육 대전환의 방향은 도민들과 전북교육가족의 공감과 맞닿아 있으며 모든 직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을 중심으로 한 10대 핵심과제는 확실히 실행돼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직원조희가 열린 가운데,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전북대, 딥테크 기반 예비창업자 단계별 지원 | DTIM 1단계 ‘스타트업 스텝’ 성료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딥테크(Dep Tech) 기반 예비창업자를 위한 단계별 지원 나섰다. 1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노폴리스퀵 퍼스사업단(단장 국경수)은 지난 6월 30일 창업지원단 코워킹스페이스에서 ‘DTIM(Deep-Tech Incubation & Market Validation) 프로그램’ 1단계인 ‘Start-up Step(1차)’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지원하는 특구형 기술창업 스튜디오 사업 일환으로, 우수 기술과 연구 성과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들이 실질적인 기술

검증과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6월 27일 서면평가를 통해 선발된 16명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1단계 프로그램에서는 △BM(비즈니스 모델) 설계 및 투자유치 전략 교육 △ 창업자 간 네트워킹 △1:1 기술전문가 매칭을 통한 기술 검증 등이 이뤄졌다. 기술 검증 과정에서는 특허 및 기술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1:1 피드백을 통해 참가자 각각의 기술 완성도와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심층 진단이 이뤄졌다. /장은성 기자

Start-up Step을 수료한 예비창업자들은 이후 2단계 ‘Design Step(창업 검증)’, 3단계 ‘Development Step(투자 검증)’, 4단계 ‘Integrated Step(종합 검증)’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치게 되며, 최종 평가를 통해 최대 3,000만원 규모의 시제품 제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경수 사업단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인재들을 위한 맞춤형 성장 사다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DTIM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별로 기술을 다듬고, 경쟁력 있는 딥테크 창업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동시와 동요의 아름다운 만남’

군산부설초, 유정 동시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신철)는 지난달 30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유정 동시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시와 동요의 아름다운 만남’을 주제로 실시된 북콘서트는 아동문학 및 아동문학작가 개념 알기, 동시 읽기 및 쓰기, 동시 낭독 등의 정서교육과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북이동문학상을 수상한 유정 작가는 동시집 ‘별처럼 꽃처럼’ 발간 이후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아동문학과 독서문화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참여한 학생은 “잘 알지 못했던 동시를 공부하고 동요를 부르고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신철 교장은 “아름다운 노랫말을 가진 다양한 동요와 동시를 접함으로써 아이들의 정서가 안정되고 건강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부설초, 학생 창의력챌린지대회 본선 진출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신철)는 전북특별자치도 초등부 대표 ‘오늘내일’ 팀으로 2025년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챌린지대회 전국 본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리는 이 대회는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협동심, 창의력 등을 키우고, 또 발명 인재 육성 및 학생 발명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은성 기자



이에 ‘오늘내일’ 팀은 전북 예선대회에서 교육감상(동상)을 수상하며 본선 진출의 영예를 안았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산학협력단

문화관광형 창업선도 교육

전주기전대 산학협력단은 ‘2025 전주다운 문화관광형 창업선도사업’의 창업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1일 전주기전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16일부터 2주간 총 50시간의 교육을 진행했다. 회계, 세무, 노무관리 등 창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 교육을 시작으로 상권분석, 마케팅, 고객관리 등 심화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또한 그룹멘토링 10시간도 마련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창업 아이템 관련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내달 8일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초기사업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 1인당 최대 1,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생 창업 희망 종목으로는 전주다온 테마의 폴댄스 공간대여, 일자리 정보 제공 플랫폼, 한옥스테이, 전주 관광 및 스탬프 활용 등이다. 조덕현 단장은 “교육 수료자들이 지역에서 실제 창업에 안착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대학 교육 혁신 · 연구 역량 제고 등 주력”

우석대, 대외협력부총장에 김운태 교수 임명... 대학원장에 이호정 교수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7월 1일자로 김운태(심리운동학과·유아특수교육과) 교수를 대외협력부총장에, 이호정(경영학부) 교수를 대학원장에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운태 대외부총장



이호정 대학원장

이에 따르면 김운태 심임 대외협력부총장은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007년 부임해 사범대학교와 평생교육원장, 인지과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2022년 교육감 후보, 군사방사사고진상규명위원회 심리부검

분과위 자문위원, 이태원참사조사위원회 자문위원,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안한국 대전환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추진위원, 가슴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심리지원 방안 연구사업 연구책임자 등 다양한 박사 학위를 통해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특히 영화 ‘도가니’의 배경인 광주인화학교 사건과 원주 귀래사 람의 집 사건, 제주 자립원 사건,

신안 염전 강제노역 사건, 서울 인강원 피해 사건, 남원 평화의 집 사건 등 여러 강제노동 및 감금사건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심임 대학원장에 임명된 이호정 교수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와 전북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3년 본교에 부임한 후 산업지역개발연구소장과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김운태 대외협력부총장은 “학문적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석대학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변화를 이끌겠다”며 “특히 대학의 교육 혁신과 연구 역량 제고, 대외 네트워크 확장에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장은성 기자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 본청으로 이관

전북교육청,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신속 처리 위해 학교 업무 부담 절감 · 사건 조사 전문성 향상 기대
사건 발생시 초기 상담 등 이뤄지도록 상담원은 유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로, 통상 내부 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6명 이상으로 구성, 운영된다. 이에 따르면 도내 모든 학교에서 성

고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실제 사건이 발생해 위원회를 개최한 학교는 2024년 기준 5곳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학교 업무담당자는 매년 위원회를 구성, 운영 절차 등을 숙지해야 하며 특히 성 관련 사건 처리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컸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학교 단위의 성고충심의위원회 기능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권위원회로 이관시키고,

사건에 대한 조사와 위원회 운영을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전담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에 대한 전문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기 상담과 관련 절차 안내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에 성고충상담원은 유지하기로 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제도 개편은 학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성인직접수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일 전주교육대학교 본부동 2층 회의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전주교대, 임명장 수여식

전보 · 파견 등 인사 단행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1일 본부동 2층 회의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6월 23일자 전보 17명과 7월 1일자 파견 5명, 전입 1명 등 총 23명으로, 조직의 전문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인사 명단 15명> 이날 수여식에는 박병춘 총장을 비롯한 각 부서의 임명장이 참석했다. 박병춘 총장은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길 바라며, 우리 대학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중심 구성원으로서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다문화교육 교원 연수

김준겸 교수 · 안톤 솔츠, 강사로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부터 7월 1일까지 한국전문화회의전당 공연장에서 2025학년도 다문화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다문화학생의 언어와 문화 적응을 돕고, 현장 교원의 전문성과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도내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교(원)장과 다문화 업무 담당 교원 4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사로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김준겸 교수와 독일 출신 인문학자 안톤 솔츠가 참여해 관심을 끌었다. 김준겸 교수는 “다문화교육과 학교 교육 현장의 역할을 주제로 이주배경

학생의 정체성과 문화 적응 과정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또한 해외 다문화교육의 사례를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며 포용적 교육 실천을 위한 교원의 역할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안톤 솔츠는 독일 공영방송 ARD에서의 언론 활동과 한국에서의 20여 년간의 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에서의 인식 전환과 공존의 가치를 전했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정은 “다문화 가정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학교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사의 이해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베트남

재생에너지 연구현장 방문

국립군산대학교 전북지역에너지리더스터인재양성사업단은 지난달 24일부터 4박 5일간, 충북·광주·전남·전북권 대학 및 지자체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기업 및 기관을 방문하는 해외 연수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학생연구원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에너지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해외연수는 하노이과학기술대학교(HUST)와 재생에너지를 주제로 상호 의견을 나누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2025 베트남환경에너지산업전 △한국전력공사 동남아시아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자치도해외통상거점센터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베트남의 에너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이동현(화학공학과) 석사과정생은 “베트남의 전력 시장과 전기차 보급 현황을 직접 접하며 에너지 전환 계기의 필요성을 체감했고, 활발한 연구 활동과 그간수소 분야에 대한 도전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수를 인솔한 국립군산대학교 이용재 교수는 “기관방문과 박람회 참관을 통해 다양한 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술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베트남 정부 및 산업계의 실질적인 노력과 정책을 통해 글로벌 시대를 넓히고, 향후 연구에 의미 있는 동기부여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북지역에너지리더스터인재양성사업단은 석·박사과정 에너지인재양성사업으로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며 국립군산대학교·전북대학교·전주대학교 등 3개의 대학이 참여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주시로부터 5년간 약 7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권신=김민호 기자